

“김, 한국 최고 히트 수산물... 부가가치 높여 세계적 경쟁력 기를 것”

정경섭 김산업연합회 회장



4대째 김 산업 종사... 농수산물 백만불 수출탑·해수부 장관상 등 수상 ‘김 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해조류 연구센터 건립 총력 김양식·1차 가공·연구개발 등 체계적 연계로 김산업 기반 구축 필요

“우리나라 최대 히트 수산물인 김과 관련해 법·제도가 광장히 미흡합니다. 수출이 급증하고 새로운 가공상품에 대한 기대도 높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요. 앞으로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와 김 양식어민, 지역 관련 기업 등이 모두 잘 사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취임 3년째를 맞는 정경섭(65·사진) (사)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은 최근 김승남(고흥·보성·강흥·강진)·서삼석(무안·신안·영암)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김 수출액이 5.7억 달러, 오는 2024년이면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산업을 육성·보호하는 법·제도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양식해역 환경변화에 따라 작황부진 및 품질저하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우량종자 연구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김을 포함한 해조류 양식연구에 필요한 연구 및 배양 시설 공간이 절대 부족해 시설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역국회의원인 윤재갑(해남·완도·진도)의원 등과도 접촉해 국립수산물연구원 해조류 연구센터 김종자연구동 건립 예산 86억원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양식, 1차 가공, 고차 가공, 유통·수출, 연구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김 산업의 미래를 밝힐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해상 자연채묘를 대체할 수 있는 육상채묘 및 냉동방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김양식 어업인에 대한 양식 및 병해 예방과 관련된 고급기술 지도 및 전수 등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김산업연합회에는 김 생산업체 2264곳, 마른김 업체 400곳, 김 수출업체 31곳, 김 종묘업체 68곳

등 2631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이들 업체들과 함께 김의 날 행사, 김 소비촉진 행사 등 홍보 마케팅, 우량 품종 및 종자 구입 지원, 수출용 포장재 구입 지원, 자조금 조성 및 운용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다만 급증하고 있는 김 소비·수출에 비해 연합회의 예산은 지난 2017년 26억여원, 2018년 28억여원에서 2019년 23억여원, 2020년 21억여원으로 오히려 감소중이다. 여기에 김 자조금사업이 오는 2023년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정 회장의 고민은 깊다.

“김 산업 종사자들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지원금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자금을 합쳐 지금까지 김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수출 지원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고요. 이에 대해 김 관련 업체, 해양수산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수시로 논의해 대책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2020년 전국 김 양식어가 3191호 가운데 2436호(76.34%), 전체 어장면적 965건 7만6052ha 가운데 703건 6만1724ha(81.16%)가 전남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전남내 김 건조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차 가공시설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이물질 선별기, 원초 절단기

지원은 없어 마른김건조업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 회장의 지적이다.

“현재 물김 생산량보다 가공공장의 건조 능력이 55% 이상 초과된 실정입니다. 그에 비해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한 현대화,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등은 없고요. 이는 김 건조업체들의 과다 경쟁을 초래하고, 김의 가치만 하락하게 됩니다. 현장의 어민과 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사업이 시급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 4대째 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 회장은 김과 관련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 등을 인정받아 일찌감치 제4회 전남도 농수산물 백만불 수출탑, 전남도지사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 앞으로 김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인들이 맛볼 수 있는 식재료가 되기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늦었지만 국산 김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 양성, 김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직 구성, 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비 및 지원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앞서도 강조했지만,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현식 기자 chadot@kwangju.co.kr

조선대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재단, 감염내과 발전 기금 기부



조선대 의과대학동창회 장학재단이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조선대 및 조선대병원 감염내과에 발전기금 4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기금은 감염병 예방 연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조선대 제공>

호남대·사학연금, 지역 인재 육성 산학협력 협약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이 최근 사학연금공단 11층 회의실에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 하남농협, 화순 수재민에 도·농상생 차량 지원



광주 하남농협이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화순지역 농민을 위해 2000만원 상당 차량을 지원했다. 하남농협과 화순 동북농협은 최근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콧노랑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콧노랑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제81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50 우리, 다시 호프 프로그램 코리아	00 평안 빌리지(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전교톱10 완전정복(재)	00 12 MBC 뉴스 20 백퍼더 편집판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안녕 우리말(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뽀뽀뽀 친구친구 50 2시 뉴스 외전	45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픽션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UHD 슈퍼 10 순국선열의 날 기획 다시 그리는 독립운동사 잊혀진 영웅들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팻 비터(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덕더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전태일 열사 50주기 특집다큐 - 두개의 일기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불타는 청춘(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2020 KBO리그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NC>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평안 빌리지	50 MBC 뉴스데스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청사특집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카타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육탄병의 문제어들	40 PD수첩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100분 토론	
[12]	10 KBS결착 다큐멘터리 <어른들은 모르는 Z세대의 삶>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65회 정기연주회		00 미운 우리 새끼(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왕스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꼬마하어로 슈퍼팩 08:00 당당당 유치원 08:30 티시테시 08:45 방구대장 뽀뽀이 09:00 보로로 동화나라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09:30 명탐정 피트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지식채널e 12:30 클래식 e 13:00 EBS 다크프라이미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4: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45 몬카르 16:15 로빈 후드 16:30 당당당 유치원(재) 16:50 해오와 해오 17:00 EBS 뉴스 17:20 마사와 꿈 17:30 출동! 슈퍼왕스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러더스 19:30 자이언트 팽TV 19:45 극한직업 스페셜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찬바람 불면 인도차이나반도- 잠깐 쉬었다 갑니다, 베트남> 21:30 한국기행 <만추, 낭만기행 2부 기술내을 따라 두벌투벌> 21:50 EBS 다크프라이미 22:45 건축탐구 - 집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7일(음 10월 3일 甲子) ☎ 010-9790-8237

36년생 결혼 형식에 얽매어서는 아니 된다. 48년생 오래된 문제점 때문에 시달리는 형상이다. 60년생 나설 때가 되었으니 기민하게 행하라. 72년생 전체적인 국면의 구도에 맞추자. 84년생 남득하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96년생 적합한 대상과 관련되면서 진전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7, 97

37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49년생 좀 더 여유를 갖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61년생 차마 밝히기 힘든 고민이 보일 것이니 조용히 해결토록 하라. 73년생 중전하는 기세로 크게 번창 하리라. 85년생 작은 국면을 넘어 긴 안목으로 임하라. 97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 써야만 유지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74

38년생 앞으로도 기회는 많을 것이니 연연하지 말라. 50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리라. 62년생 기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진면목을 보게 되리라. 74년생 제대로 파악해야 실수가 없으리라. 86년생 내버려 둔다면 우려하였던 바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98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행운의 숫자 : 75, 65

39년생 양자 사이에서 처신하기 어렵겠다. 51년생 마주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느니라. 63년생 할 일이 쌓여 있으니 꼭두새벽부터 서둘러야겠다. 75년생 지내놓고 보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87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99년생 직관에 따르더라도 무리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5, 55

40년생 여태까지 준비 해 왔던 바의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52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64년생 눈길을 사로잡는 이채로움이 있을 것이다. 76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88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00년생 뻔히 다 예견하면서 도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7, 60

41년생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괜찮다. 53년생 전혀 남득하기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니라. 65년생 가급적 조용히 조처하는 것이 상책이다. 77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뒤집혀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다. 01년생 상호 교체한다면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행운의 숫자 : 40, 50

42년생 대응하기에 용이한 형국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54년생 지금까지는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더 나아가야 할 길목이다. 66년생 재조명하게 되리라. 78년생 표면화 시킨다면 경색 국면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90년생 전혀 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02년생 진용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7, 85

31년생 복잡다단한 국량이니 부지런히 행거야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43년생 중요한 일으므로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55년생 진땀을 빼면서 애를 써야만 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67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자. 79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이니 빨리 청산 하라. 91년생 원리원칙대로 대처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0, 62

32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세이니 주저하지 말고 본궤도로 진입토록 하라. 44년생 발전적인 이동수이다. 56년생 철학하는 것이 현명하다. 68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이른다. 80년생 급작스런 변화가 보인다. 92년생 양상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4, 70

33년생 불변한 입장에 서게 되는 꼴이다. 45년생 준비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느니라. 57년생 확신을 갖고 한 방 날려도 될 시기이리라. 69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 81년생 획기적인 발전점이 있어 보이나 수용한다면 유익하리라. 93년생 중용을 유지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91

34년생 원칙에 따라서 똑바로 체계를 세울 때이다. 46년생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의 교류가 있을 것이다. 58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70년생 중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느니라. 82년생 특별한 형태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94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하다.
행운의 숫자 : 41, 73

35년생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47년생 인식의 변화의 폭이 크다. 59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71년생 약간 변할 수도 있으나 대중소이 하노라. 83년생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숙고해 볼 일이다. 95년생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차 확대일로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46, 77